

# “목포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 재협상해야”

### 市-LH 3개층 매입 갈등 속 시의회·시민들 요구 고분양가에 중도금 65억 지급 못해 연체료 부담



목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트윈스타 건설현장 모습.

목포시 남교동에 건설중인 31층 트윈스타 내 행정타운 매입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회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윈스타 건립과 관련 목포시는 지난 2009년 5월 3·4·5층을 행정타운으로 매입하겠다는 협약을 LH와 체결했다.

당시 협약 내용은 3개 층 9200㎡를 매입해 목포시 산하기관인 도시개발사업단과 상수도사업단을 입주시키겠다는 것. 평당 매입가는 789만원으로 총 217억원에 이른다.

특히 공정률이 40%를 넘어서면 목포시가 중도금으로 총 매입대금의 30%인 6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산하기관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여론에 밀려 목포시는 지난해 2월부터 총 8회에

걸쳐 LH측에 행정타운 규모 축소 및 매입단가 인하를 요청했으나 수용불가 회신만 받았다.

급기야 목포시가 중도금 65억원에 대한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하루 150만원의 연체료를 물어야하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와 일부 시민들 중심으로 최근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중요 재산 취득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목포시는 3개월이 지난 2009년 8월에야 시의회의결을 받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행정타운의 평당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높게 책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증별로 분양가가 차등 적용돼야 함에도 3개 층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면적이 9200㎡에서 1만858㎡로 늘면서 매입가도 217억원에서 256억원으로 증가했고 산하기관의 면적이 시정사보다 과잉투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견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추진 중”이라며 “중도금은 2차 추경과 도시개발사업단 및 상수도사업단의 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측은 “시가 이제 와서 1개 층을 줄여 2개 층만 산다면 분양공고가 거짓말이 돼 법적 책임문제도 생기고 해약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장성군민, 음식물 종량제 대체로 만족

### 설문결과 75% “시행 필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장성군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성군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75%의 주민이 제도 시행에 공감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된 장성읍 영천리 4개 동 주민 200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74.5%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66%가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부필증(칩) 가격의 적절도’에는 61.5%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종량제 시행 이후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는지’에 대해서는 63%의 주민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소수의 주민들은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거 용기가 너무 작아 불편하다는 불만을 토로했으며 매일 수거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장성군은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시기에는 수거 횟수를 늘리고 종량제 봉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 2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로 예산절감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 목포 옥암지구 노른자위 땅 34필지 5만8448㎡ 팝니다

### 준주거·일반상업용지

목포시가 옥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준주거용지 등 노른자위 땅을 분양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남도청 인근 34필지 5만8448㎡를 공개 경쟁 입찰 등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이 땅의 용도는 위험물 및 처리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이다.

수변공원과 영산호 부근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2필지), 법원,

검찰청 건너편 일반 상업용지 10필지, 제1중 전용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용지 15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 등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매각중이다.

이번에 분양할 용지는 옥암지구 내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시개발과(061-270-344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식수난 낙도에 생수 공급

신안군은 지난 14일 계속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하의면 문병도, 신의면 고시도 등 3개 섬 53가구에 생수 2500병을 공급했다. 신안지역 일부 섬은 식수가 바닥나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4일 계속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하의면 문병도, 신의면 고시도 등 3개 섬 53가구에 생수 2500병을 공급했다. 신안지역 일부 섬은 식수가 바닥나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화순 농산물 직판장·선과장 착공

### 15억 들여 도곡면에

화순지역 농산물 직판장 및 선과장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화순군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도곡면 효산리에서 농산물 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사업 착공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안전지원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화순군과 각급 기관 사회 단체장 및 농협 관계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화순군은 오는 11월말까지 도곡면 효산리에 15억2000만원을 들여 연면

적 4335㎡에 농산물 직판장 525㎡와 선과장 660㎡를 지을 계획이다.

특히 로컬푸드직매장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단축시키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극대화해 농민과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농가들의 오래 숙원인 직판장이 지어지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가을무·배추 적정면적 재배 하세요

### 전남도, 의향조사결과 12% 증가... 수급관리 나서

전남지역 올해 가을 무와 배추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 것으로 예상돼 전남도가 수급관리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배 의향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각각 12%, 겨울배추(월동배추)는 9% 정도 늘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무는 지난해 1196ha에서 144

ha가 늘어난 1340ha, 가을배추는 2937ha에서 352ha 증가한 3289ha로 추산됐다. 전국 겨울배추의 98%를 차지하는 이른바 월동배추는 4865ha에서 올해는 4388ha가 늘어 5303ha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지역의 가을무와 배추의 전국 점유율은 18%와 22%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 가을무는 경기, 강원, 충청이 10%, 호남이 16% 가량 늘고, 가을배추는 경기와 강원이 8%, 호남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무와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채소류 가격이 좋았기 때문이다.

월동배추의 경우 올해 출하가 가격

상승과 김치 가공업체의 계약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채소류는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공급량이 조금만 늘거나 줄어도 가격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등 가격 탄력성이 매우 커 적정재배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가을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면적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 김치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수급 불안 시 가격 지지를 위해 시군별로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재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출하하는 채소류는 긴 장마와 일조시간 부족, 무름병 발병 등으로 고품질산 배추 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열갈아배추, 열무 등으로 대체하면 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 가을무, 배추는 지난해 수준으로 재배하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kwangju.co.kr

## 담양 ‘자연식 반찬사업화’ 교육 인기

### 지리산 약초학교 등 현장체험

담양군이 실시하고 있는 ‘자연식 반찬 사업화’ 교육이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15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4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자연식 반찬 사업화 교육이 총 10회 교육용 지금까지 6차례 실시됐으며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농·특산품과 부

존자원의 반찬 사업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자연식 반찬의 보급으로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는 장성 북하 특화 사업단을 방문, 반찬사업 운영현황과 요령 등을 배우고 남원에 있는 지리산 약초학교에서 식초와 효소의 가공원리와 효소를 활용한 음식 조리법을 습득하는 등 현장 체험교육을 다녀왔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서비스표등록증

5-18낙지

# 낙지의 명가 5.18낙지

##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